1

9월 둘째 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1)

- 읽을 말씀 마 5:17-20
- 주요 내용

오늘은「나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가?」첫 시간으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하는 근거를 보여주는 마태복음 5장 17-20절 말씀 중 17절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본론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까지입니다.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율법" 과 "선지자" 로 인클루지오 구조이므로, 산상수훈의 본론은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서론은 칭의, 본론은 성화, 결론은 영화(즉 심판)를 다룹니다. 본론에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느냐? 버림받느냐?" 를 결정짓는 구원에 관계되는 교훈과 그것을 초월한 성화 즉 더욱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한 교훈이 있으며, 그것이 본론의 특징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는 본론 전체의 주제입니다. 본론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왜 가져야 하는지 그 근거를 보여주는 부분(마 5:17-20)과 그 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산상수훈은 구구절절 다 중요하지만 5장 17-20절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서론에서는 제자들의 정체성(팔복)과 세상에서 그들의 역할(소금과 빛)을 다룹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라' 는 내용의 17-20절입니다. 이것은 산상수훈 본론 전체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결론(마 7:13-28) 역시 이 단락에 근거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면 결론의 가르침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이유는 팔복의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법으로 삼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마태복음 5장 17-20절은 산상수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요, 새 언약 시대의 구원론의 정수입니다. 따라서 이 단락은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키가 되기 때문에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1)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하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삶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마 5:20)**"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무리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도 여전히 큰 충격입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진리이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1)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장로들의 유전을 무시하고 도덕적인 것을 의식법보다 더 강조하며, 율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나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주님의 입장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20절에서 답을 하셨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17절)**"는 구약성경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주된 의미는 "나의 사명이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구절에 있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언은 유대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 17절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율법은 폐해졌나? 안 폐해졌나?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5:17, 요 10:35).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는 율법이 폐해졌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엡 2:15, 히 7:18, 10:9). 그렇다면 둘 중 어느 것이 옳을까요? 둘 다 옳습니다.

구약시대(옛 언약시대)는 지나갔고, 지금은 신약시대(새 언약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율법(옛 언약)은 폐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새 언약의 그림자요, 예수님(즉 복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의 예언뿐 아니라 계명까지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지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모세의 율법에 따라 신앙생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7절의 선언은 결국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주장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역시 이것을 이해했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롬 3:31).**"고 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율법을 파기(폐하다, 무효로 하다)하느냐?**" 와 반대되는 표현으로, 율법이 결코 폐해지지 않았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이 온전히 일치하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율법주의의 쓰나미에 휩쓸려 타락하고 멸망할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계에는 무율법주의 이단(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정통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안전을 위해 그런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② 의식법만 폐해졌나? 도덕법도 폐해졌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율법을 "도덕법" 과 "의식법" 과 "사회법(민법)" 으로 분류했습니다. 율법이 폐해질 때 도덕법을 제외한 나머지만 폐해졌다는 주장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이들이 17절에서 예수님이 다루고 계신 율법은 도덕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법만 폐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모두 폐해지고, 예수님을 통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의 일점일획(18절)**"이라는 표현은 도덕법이나 의식법의 구분 없이 율법 전체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도 그 증거 중 하나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을 칼빈은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일과 같은 특정한 의식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담(엡

2:14)" 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 문맥상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식법만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고, 원수가 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불신 결혼을 통한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출 34:11-16, 신 7:1-4, 20:16-18)은 도덕법으로 대변되는 십계명의 1-2계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의식법 못지않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 되게 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2장 15절을 의식법만 폐해진 것으로 이해하면 안됩니다.

이외에도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중요한데, 클린턴 아놀드는 「강해로 푸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글에서 의식법과 도덕법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발견할 수 없다.**" 라고 썼습니다. 또, 같은 사실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마태복음 5장 17-18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의식법까지 모두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17절에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고, 18절에서는 율법의 일점일획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의식법을 두고 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의식법만 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릇된 해석입니다.

율법시대는 지나갔고,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5절을 그 기반 위에서 말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율법 전체를 완전케 하여 의식법은 복음이 되게 하시고, 도덕법과 사회법은 새 시대를 위한 삶의 규범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율법은 전부 폐해지고 전부 온전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바른 해석입니다.

● 나눔과 적용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완전케 하신 율법이 내 삶의 규범으로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완전케 하신 율법에 순종하며 누리게 된 유익들과 승리의 경험들을 나누어 봅시다.